

일탈·갑질 이어 의원실 넓히기...기초의원들 '너무 하네'

북구의회 2인 1실, 개인실로 리모델링...냉난방기 설치 등 예산 낭비 지적도 남구의회도 전문위원실 없애고 의원사무실 넓히기 나서 공무원노조 거센 반발 "시민 삶 보다 자신 안위 지키기 열 올리나" 비판...공천시 철저한 검증 거쳐야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채용 요청, 주·정차 과태료 면제 요구에 이어 자신들 개인 사무실 확대 요구까지 나왔다. 의회의 자정 작용 부재 뿐 아니라 이들을 공천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9월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북구의회 환경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는 의원 2명 당 사무실(7개·사무실당 33.75㎡) 한 곳을 사용하던 것을 의원별 개인사무실(14개·사무실당 21㎡)로 변경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구의회는 공사를 통해 의장·부의장실 2곳(38.5㎡), 4개 상임위원실(35㎡), 14명 개인 의원 사무실 등 모두 20명의 의원별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은 안전을 심의,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가족이나 청사 공간이 비좁아 공무원들이 딱딱하게 붙어 근무하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개인 의원실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여름 1억4000만원을 들여 의회 내 28대의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놓고 공사 때 다시 뜯어내 재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여름 북구의회 이전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증축 사업이 예상됐는데도,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환경 개선에만 몰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남구의회도 비슷하다. 남구의회도 의원들의 사무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실을 없애버리면서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남구의회는 지난 24일 청사 9층 의회전문위원실을 없애고 여기에서 근무하던 전문위원 3명을 의회 사무국으로 옮겨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의회사무국은 40㎡로, 24명이 업무를 보게되면서 1명당 평균 사무공간은 1.6㎡ 수준인데 비해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34.5㎡라는 게 공무원 노조측 주장이다. 공무원노조측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넓은 의원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무원 공간을 뺀 것

은 '갑질'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의원사무실을 넓힌다는 이유로 전문위원 사무실을 폐쇄,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도영 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와관련, "의원 사무공간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니라, 인선한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반발하니 여성휴게실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여성직원들도 눈치를 보느라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비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두 사건 용의자 DNA 확보했는데...

올 3월 성폭력범과 일치...2016년 범행 단정은 어려움

2016년 5월 어느날 새벽, 어느 작은 마을. 고령의 피해자 F씨 집에 누군가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 현장에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옷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것과 혼합된 '남성' 용의자의 DNA. 이것만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채취한 DNA만 남긴 채 사건은 미제(未濟)가 됐다.

A씨가 2016년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같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A씨가 2016년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의미다. Y-STR DNA분석법은 성(性)염색체 중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가 부계를 통해 그대로 유전되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충분한 DNA가 확보되지 않거나 남성·여성 유전자형이 혼합돼 검출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시기, 이 일대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까지 8건의 야간주거침입강간 미수 범행 등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경찰이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경우만 7명에 달했다. 지난 3월, 인근 마을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 남성의 DNA를 확보했다. 이후 범행 시간 전후로 인근 장소를 들락거린 차량 1858대를 대상으로 수사, 13대로 압축한 뒤 차량 주소지를 파악해 다시 3대로 좁혔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했던 때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인근을 통과했던 차량 소유자 A(51)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잠복, 용의자가 아파트단지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머리카락, 장갑, 용의자가 먹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찾아내 국과수로 보냈다. 결과는 일치.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해 구강상피세포를 채취, 범행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범행 현장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A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장소 인근 로드뷰와 위성사진을 캡처한 800개가 넘는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었다. 범행 장소 인근 교차로, 통행로, CCTV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신주, 주택 대문 등이 찍힌 것들이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반전(反轉)이 일어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같은 점을 종합해 A씨를 두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지난 3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A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 내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출입 금지, 밤 10시부터 7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준수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범행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피고인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확률은 170자(경의 역배로 10의 24승)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3월 범행의 범인은 A씨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사건의 경우 "A씨가 2016년 범행 현장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의 Y-STR DNA형이 일치한다는 결과는 A씨와 2016년 범행의 범인이 '동일한 부계 혈통'에 속한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의 개인식별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당시 범인임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모방범죄가 섞여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범행과 유사하다고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재 피해 주민 병원 이송 분주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단지 11층에서 실화 추정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들이 연기를 흡입한 주민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환경단체 "무등산 난개발 대책 마련하라"

3039명 시민 서명 광주시에 전달 환경단체들이 무등산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39명의 시민서명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무등산신양개울신축반대시민연대(이하 무등산시민연대)는 29일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 3039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하고 무등산 난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천편일률적이고 마구잡이식 도시개발이 아닌, 개발지역과 개발해서는 안되는 곳, 공동주택을 지을 곳, 건물 높이를 규제할 지역 등 도시 공간의 질서를 명확히 세울 도시계획 마인드를 갖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최근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단지 허가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업체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공동주택 건축계획과 관련, ▲지상 4층(층고를 감안하면 사실상 6층 높이)인 공동주택과 주변 건축물과의 검토를 거칠 것 ▲진입도로 관련 적합성 여부를 보완하는 한편, 건축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호텔을 소유한 ㈜대양인투스는 2만5821㎡ 터에 지하 3층~지상 4층 6개동 80가구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건축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지방경찰청→전남경찰청으로 기존 2부→3부 체제로 조직 개편

전남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된 경찰법 시행에 맞춰 '전남도경찰청' 또는 '전남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2부에서 3부 체제로 운영한다. 1부(공공안전부)에는 경무기획정보보호장비과·경비과·공공안전정보의사과가, 2부(수사부)에는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형사과·과학수사과·안보수사과가, 배속된다. 신설되는 3부(자치경찰부)에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배속된다. 공공안전부는 국가경찰,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부는 사·도자치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기존 112종합상황실은 청장 직속으로 지구대·파출소 인원 관리 및 지휘까지 맡는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자기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